

달크로즈의 <어린이 정원: 24개의 리듬 게임을 위한 소품>에 나타난 음악과 이야기의 상관관계 분석*

박 소 연**, 유 승 지***

■ 국문초록

달크로즈의 <어린이 정원: 24개의 리듬 게임을 위한 소품>은 어린 학생들의 신체 조절 능력 향상을 돕는 리듬 게임 진행을 위해 작곡되었고, 각 작품에는 음악과 잘 어우러지는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음악과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발견하고, 내레이션이 포함된 피아노 작품 창작의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작품 분석 결과 달크로즈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동물 및 곤충, 놀이, 일상 생활, 교통수단 그리고 자연 등에서 이야기의 소재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야기에 담긴 이미지, 움직임, 소리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달크로즈가 사용한 작곡 기법은 1) 특징적 모티브의 반복적 사용, 2) 변화 화음, 다양한 음계 및 빈번한 전조를 통한 분위기 전환, 3) 내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프레이즈 및 형식의 전개, 4) 기타 음악 요소의 선별적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계기로 <어린이 정원>과 같이 특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작품들이 보다 활발하게 창작되고, 융합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유·초등교육에서 이러한 작품들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주제어: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리듬 게임, 내레이션

〈목차〉

I. 서론	IV. 이야기 표현에 사용된 특징적 작곡 기법
II. <어린이 정원> 개요	V. 결론
III. 이야기의 소재 및 유형	참고문헌

* 본 논문은 2022년 5월 28일에 개최된 제14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학술대회 포스터세션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 것임.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피아노교수학과 박사과정, siharmony.official@gmail.com

*** 한세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sj_ryu@hanmail.net

I. 서론

달크로즈(E. Jaques-Dalcroze, 1865-1950)는 혁신적인 음악 교육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피아노 작품도 많이 작곡하였다(Hinson & Roberts, 2014). 특히 헬레라우(Hellerau)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1910년을 기점으로 달크로즈는 플라스틱 안무 연습(plastico-choreographic exercises)¹⁾을 위한 피아노 작품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Jaques-Dalcroze, 1999). 1930년에 출판된 <어린이 정원: 24개의 리듬 게임을 위한 소품>(Le Jardin d'enfants²⁾: 24 Petits Jeux rythmiques) 역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곡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24개의 리듬 게임을 위한 소품>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달크로즈는 이 책을 쓴 목적이 빠르게 반응하기, 음악에 반응해서 움직이다 멈추기, 호흡하기 등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Jaques-Dalcroze, 1930). 다시 말해서 이 곡은 학생들의 피아노 학습을 돕는 연주곡으로 작곡된 것이 아니고, 유치원 연령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업에서 리듬 게임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작곡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곡에는 흥미로운 표제들이 붙어 있고,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끌어내는 내레이션(narration)이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와 비언어적 음악을 접목해서 연주자 혹은 청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시도는 19세기 낭만주의에 성행했지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쿠나우(J. Kuhnau, 1660-1722)의 <성서 소나타>(Biblical Sonata, 1700)에서도 발견된다. 쿠나우는 이 작품에서 표제와 각 악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악보에 묘사적 설명(explanatory rubrics)까지 덧붙였는데(Randal, 1986), 달크로즈는 <어린이 정원>에서 쿠나우가 사용했던 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곡 전반에 걸쳐 음악과 이야기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며 전개되도록 작곡하였다. 데일(M. Dale)은 “이야기는 어린이들의 자연적인 탐구 욕구를 충족시키며, 역할 놀이를 통해 언어, 소리, 기호, 상상력, 시퀀스, 즉흥 놀이, 그룹 상호 작용, 사회적/정서적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2020, p. 39)고 하였는데, 달크로즈는 음악과 이야기를 접목한 음악 동화의 형태로 <어린이 정원>을 작곡함으로써 어린 학생

- 1) 현대 음악 교육에서는 유리드믹스(eurhythmics), 리드믹스(rhythmics)등으로 지칭된다. 유리드믹스는 고유 감각(proprioception), 균형 및 빠른 반응 연습을 통해 신경계 및 신체 감각(시각, 청각, 촉각, 운동 감각, 고유 감각)을 발달시키는 훈련을 포함한다(Le Collège, 2019, p. 15).
- 2) <Le jardin d'enfants>은 사전적으로 ‘유치원’이라는 뜻을 가진다. 그런데 달크로즈는 이 작품집의 서문에서 책에 제시된 리듬 게임을 ‘야외나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실내에서 할 것’(Jaques-Dalcroze, 1930, preface)을 명시했고, <jardin>과 <d'enfants>을 분리하면 ‘어린이 정원’으로 번역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작품의 전반적인 구성과 내용을 고려하여 은유적 표현이 담긴 <어린이 정원>을 작품집의 제목으로 명명하였다.

들의 음악성 뿐 아니라 정서 및 사회성 발달도 꾀한 것으로 보인다.

카우츠키(C. Kautsky)는 “이야기는 음악의 표현적 내용을 크리스털처럼 명징하게 만들어 준다.”(1999/2000, p. 20)고 하면서 초급부터 고급에 이르는 이야기가 포함된 피아노 작품들을 소개하였다. 그 중 브람센(H. Bramsen)의 <곰의 우주여행>(A Bear's Journey into Space, 1988)은 초급 수준의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작품으로 악보에 묘사적 설명을 넣지 않고 각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소개하는 특징을 가진다. 음악과 문학적 요소를 결합한 많은 작품을 작곡한 사티(E. Satie, 1866-1925)의 <관료적인 소나티네>(Sonatine Bureaucratique, 1917)는 중급 수준의 학생들이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인데 묘사적 설명이 악보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발견된다. 하지만 가구 음악(furniture music)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사티의 다른 음악처럼 음악이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 배경음악(background music)처럼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 이에 반해 사티를 멘토로 생각했던 폴랑크(F. Poulenc, 1899-1963)의 <아기 코끼리 바바 이야기>(L'Histoire de Babar, le petit éléphant, 1940-1945)는 22분이나 소요되는 난이도가 높은 작품으로 폴랑크의 가장 매력적인 피아노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Hinson & Roberts, 2014), 이야기의 내용이 음악에 보다 적극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발견된다. 달크로즈의 <어린이 정원>에는 이 작품들에서 소개된 다양한 이야기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위의 작품들과 차별되는 점이 부각되는데, 그것은 내레이션이 음악의 표현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학생들의 ‘음악 감상’을 돕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끌어내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1915년 자크 달크로즈 인스티튜트(Institut Jaques-Dalcroze)를 방문한 코포(J. Copeau)는 달크로즈가 가르치는 수업을 참관한 후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와 학생들 사이에서 긴밀한 유대감이 느껴졌다[....]그는 어린이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그는 백설 공주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들을 말과 피아노 연주로 동시에 전달하면서 학생들이 반응하도록 만들었다(Spector, 1990, p. 223).

위의 글을 통해 우리는 달크로즈가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동화 구연가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음악과 이야기에 반응하면서 학생들의 활동이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동시에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내레이션이 포함된 <어린이 정원>의 수업 장면도 그려 볼 수 있다.

달크로즈 유리드믹스 수업에서는 학생, 교사, 음악, 그리고 움직임 사이에서 다양한 대화(dialogue)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Haddon & Burnard, 2016). 그런데 어린 학생들의

수업에서 음악과 움직임 외에 이야기가 추가될 경우 이러한 대화는 보다 활성화되고, 이야기는 학생들이 음악을 통한 대화를 보다 쉽게 나눌 수 있게 만드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달크로즈는 묘사적 설명을 가진 작품에 어린이들이 큰 흥미를 가지는 것을 간파했고, 악기를 배우기 전에 이러한 음악들을 접하며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Jaques-Dalcroze, 1921).

이러한 생각의 발현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어린이 정원>이고 이 작품에는 음악, 이야기, 움직임이 함께 어우러지는 활동을 끌어낼 수 있는 24개의 내레이션이 포함된 표제 음악이 담겨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어린이 정원> 분석을 통해 음악과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내레이션을 포함한 피아노 작품 창작의 아이디어를 발견하여, 유·초등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II. <어린이 정원> 개요

<어린이 정원>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6개의 리듬 게임>(Six Jeux Rythmiques pour Enfants et Adolescents, 1925)은 달크로즈가 작곡한 대표적 내레이션이 포함된 피아노 작품이다.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6개의 리듬 게임>은 각 곡의 길이가 길고 소재도 제한적이며 그 대상도 청소년까지 펼쳐져 있다. 하지만 <어린이 정원>의 경우 17마디에서 87마디로 이루어진 1~2쪽 내외 분량의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린이들의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욱 풍성하게 담겨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 정원>에 수록된 작품에만 초점이 맞춰져 분석이 이루어졌다. <어린이 정원>에 수록된 작품의 표제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물 및 곤충, 놀이, 일상생활, 교통수단, 그리고 자연 등의 다양한 소재가 관찰되며 특정 음악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표 1> <어린이 정원>의 구성

작품	조성	박자	작품	조성	박자
1. 담배 피우는 사람들 (Ceux qui fument)	E♭ - fm - gm - cm - A♭ - E♭	4/4	2. 군대 행진곡 (La musique militaire)	B♭	2/4
3. 뾰족한 모자를 쓴 화가 (Le peintre au chapeau pointu)	C	3/4, 6/4, 3/4	4. 공중으로 필쩍 뛰어오르기 (De grande sauts en l'air)	cm - C Phrygian - cm	4/4

작품	조성	박자	작품	조성	박자
5. 포르테, 피아노 (Forte, piano)	A \flat - cm - F - E \flat - A \flat	3/4	6. 비눗방울 (Les bulles de savon)	D	3/4, 4/4, 3/4, 2/4, 3/4
7. 그네 (La balançoire)	bm - D - bm - B Phrygian - bm	2/2	8. 뭔가 잘못되었을 때! (Quand on est coupable!)	G Aeolian - C Mixolydian - G Aeolian	3/4
9. 날아다니는 작은 음악가들 (Les petites musiciens volants)	G Aeolian - b \flat m - G Aeolian - G	4/4, 2/4, 4/4, 2/4, 4/4, 2/4, 4/4, 2/4, 4/4	10. 배를 타고 (En bateau)	D - C - D	3/2
11. 물이 주는 깜짝 선물 (Les petites surprises de l'eau)	am - Aeolian - D Phrygian - am	12/8	12. 바람과 폭풍 (Le vent et la tempête)	B \flat (D Phrygian) - D - B \flat (D Dorian) - F - F Dorian - C - B \flat	4/4, 2/4, 4/4
13. 소박한 방문 (L'humble visite)	C - A \flat - C - em - cm - A \flat - G - C	4/4	14. 뜨거운 것과 추운 것 (Le chaud et le froid)	bm - b Aeolian - C - A - bm - am - G - bm	12/8
15. 수다쟁이 할머니들 (Les vieilles bavardes)	cm	4/4	16. 민들레 (La dent de lion)	E \flat - gm - cm - E \flat	3/4, 4/4, 3/4, 4/4, 3/4 4/4, 3/4
17. 크리스마스 트리 (L'arbre de Noël)	A \flat - E \flat - dm - fm - A \flat - C - A \flat	4/4, 2/4, 4/4, 12/8, 6/8, 12/8, 3/4	18. 화재 (L'incendie)	dm - B \flat	3/4
19. 마부와 말 (Cocher et chevaux)	A - B \flat - A - C - A	3/4, 2/4	20. 아침 기상 (Le réveil matinal)	cm - C - fm - gm - E \flat - fm - E \flat	12/8
21. 악마 (Le diable)	C	4/4	22. 어마어마한 비 (Quelle bête de pluie)	C - F - G - C	4/4, 2/4, 4/4, 2/4, 4/4
23. 시계 (La pendule)	A	8/12	24. 커다란 교통 수단 (Le gros trafic)	gm	4/4

조성의 경우 한 가지 조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 작품은 2번, 3번, 6번, 15번, 21번, 23번, 24번뿐이고, 대부분 잦은 전조가 사용된 것이 발견된다. 전조를 할 때도 17번(A \flat -E \flat -b-dm-fm-A \flat -C-A \flat)과 같이 관계 조 뿐만 아니라 원격 조로의 전조를 즐겨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번, 18번, 20번처럼 처음에 시작한 조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조에서

끝나는 곡들도 발견되었다. 선법도 비중 있게 사용되었는데 에올리아 선법(4곡), 프리지아 선법(4곡), 도리아 선법(1곡), 그리고 믹소리디아 선법(1곡)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달크로즈는 4번, 7번, 9번, 14번과 같이 한 작품 내에서 한 가지 선법만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8번, 11번, 12번처럼 두 가지 선법을 적용하거나 장음계와 선법을 오고가면서 음색의 변화를 주기도 하였다. 또한, 반음계도 즐겨 사용하였는데, 24번의 경우 반음계가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나타난다.

박자의 경우에도 한 가지 박자만 사용된 작품도 있지만, 변박자가 사용된 작품도 8곡에서 발견된다. 그 중 6번과 같이 박자가 3/4-4/4-3/4-2/4-3/4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 박(♩)이 동일한 작품도 있었지만, 17번처럼 4/4-2/4-4/4-12/8-6/8-12/8-3/4로 박자가 전개되어 기준박이 4분음표(♩)와 점4분음표(♩.)를 오가는 작품도 발견된다.

III. 이야기의 소재 및 유형

1. 이야기 소재

〈어린이 정원〉에서 달크로즈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 및 20세기 초반의 문화가 반영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작품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소재는 달크로즈가 직접 선택한 것인데, 2번, 3번, 6번, 9번, 12번, 17번, 그리고 24번의 경우 그의 훌륭한 조력자였던 고터(N. Gorter, 1866-1922)가 제시한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Dalcroze, 1930). 표제와 작품 속에 제시된 이야기의 내용을 소재별로 분류해보면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 2〉 이야기의 소재별 분류

구분	내용
인물	담배 피우는 사람들(숙녀, 젊은 남자, 아빠, 할아버지), 군인, 음악가, 지휘자, 화가, 친구, 마부, 어린이,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학생, 하녀, 수다쟁이 할머니, 산책하는 사람들, 방문객, 악마
동물 및 곤충	토끼, 사자, 꿀벌, 귀뚜라미, 날벌레, 말, 개, 고양이, 새, 말벌, 나비, 까치
놀이	그림 그리기, 비눗방울 놀이, 그네 타기, 휘파람, 노래, 점프, 배 타고 노 젓기, 육조에서 물놀이, 춤추기

구분	내용
일상생활 및 문화	담배, 산책, 영화관, 무성영화, 작은 집, 벽난로, 굴뚝, 방 돌아다니기, 학교에서의 생활, 목욕하기, 부푼 빵 불기, 일, 글쓰기, 청소하기, 겨울 하룻길, 이야기 나누기, 식탁에서 음식 먹기, 크리스마스, 장작불 피우기, 아침 기상, 코 골기, 하품하기, 세수하기, 여행, 시계, 밥 먹기, 옷 갈아입기, 집짓기
교통수단	기관차, 화물 트럭, 비행기, 증기선
자연	달, 산, 나무, 바람과 폭풍, 민들레, 백합, 꽃, 나비, 비, 구름
음악 개념	포르테와 피아노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를 사는 어린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들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21세기의 어린이들에게는 생소한 마부, 하녀, 무성영화, 증기선 등과 같은 생소한 소재들이 다루어진 것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한 예로 무성영화(silent film)를 소재로 다룬 2번에서는 “우리는 영화관에서 군악 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군인들을 보았다. 연주자들은 불을 부풀려 악기를 불었지만 영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Jaques-Dalcroze, 1930, p. 2)라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 무성영화가 1930년대의 어린이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소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생소한 장면이 내레이션으로 소개되어 역사적·문화적 발견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번에는 “먼저 침실로 가서 세숫대야를 하나 찾아와야 한다....거기에 물을 담고 검은 비누(올리브 오일과 올리브 나무의 재로 만든 자연산 비누)를 녹여야 한다.”(Jaques-Dalcroze, 1930, p. 6)라는 구절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연산 검은 비누를 세숫대야에 풀어 비눗방울을 만드는 장면은 상품으로 만들어진 비눗방울을 가지고 놀이를 하는 현대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라 흥미로웠다.

한편,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 중 1번에서는 “숙녀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산책하고 있다. 그녀들과 마주친 젊은 남자 역시 담배를 피우고 있다.”(Dalcroze, 1930, p. 1)는 내용이 내레이션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이 금기시되고 금연 문화가 강조되는 요즘 시대에서는 흔히 발견할 수 없는 장면이 작품집의 1번 소재로 선택된 것이 놀라웠고 음악 작품을 통해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20세기 초반의 흡연 풍습을 접할 수 있었다.

2. 이야기 유형

이야기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작품의 배경 및 음악에 맞춰서 해야 하는 활동을 곡의 앞부분에 소개한 유형, 둘째, 오선 악보 사이에 내레이션을 삽입한 유형, 셋째, 악보 하단에 응용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한 유형이다. 소개된 3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작품도 있고, 한 가지 유형만 포함된 작품도 있는데 24곡을 이야기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표 3>과 같이 요약된다.

<표 3> 이야기 유형별 분류

구분	내용
첫째 유형	2번, 3번, 7번, 10번, 12번, 17번, 19번, 22번, 23번
둘째 유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8번, 9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셋째 유형	3번, 5번, 8번, 10번, 23번, 24번

<표 3>의 이야기 유형별 분류를 기초로 각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의 배경 및 음악에 맞춰서 해야 하는 활동을 곡의 앞부분에 소개한 유형

7번은 내레이션이나 추가 활동 없이 곡의 앞부분에 이야기만 제시한 유일한 작품이다. 작품의 표제는 ‘그네’인데 달크로즈가 제시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물론 진짜 그네는 없어요. 그네를 타고 있는 것처럼 할 뿐. 그런데 진짜 재미있을 거예요. 바닥에 앉아 내 앞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몸을 맡겨 보세요. 그리고 서 있는 친구는 몸의 무게를 완전히 뒤로 보내 앉아 있는 친구의 몸이 일으켜 세워지도록 해 보세요. 서 있는 친구가 앉으면 앉아 있던 친구는 저절로 일어서게 됩니다. 어느 순간 두 사람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 팔이 팽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Jaques-Dalcroze, 1930, p. 7).

이러한 이야기가 제시된 후 안단티노(Andantino)에서 2/2박자의 음악이 소개되는데, 이 음악은 2분음표(♩)단위로 학생들이 앉고 일어서는 동작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진행을 보인

다.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활동에 대한 설명이 소개된 경우도 있지만, 악곡에 포함된 내레이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 설명이 제시되기도 한다. 3번의 경우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

뾰족한 모자를 쓴 화가는 저녁마다 산책을 합니다. 그는 수평선 너머 떠오르는 달을 보았어
요. 큰 파이프를 피우면서 연필로 달을 그리려고 멈춰 섰어요(Jaques-Dalcroze, 1930,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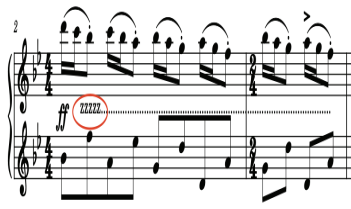
교사가 음악을 연주하기 전에 학생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모두 화가가 될 준비를 마친다. 연주가 시작되면 음악과 교사의 내레이션을 좇아 화가가 되어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2) 오선 악보 사이에 내레이션을 삽입한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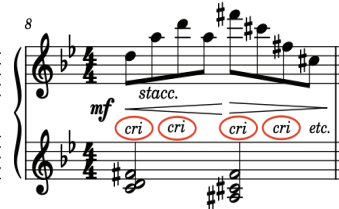
24곡 중 22곡에 학생들이 해당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하는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4번에서는 <악보 1>과 같이 사자의 움직임에 관련된 내레이션이 악곡 전반에 걸쳐 제시되고, 학생들은 교사의 음악 연주와 이야기에 맞춰 직접 사자가 되어 움직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반음계적 선을 진행, 잠시 동작을 멈추게 하는 점 2분음표(♩), 급박하게 진행되는 리듬 패턴과 내레이션이 어우러져 학생들은 정말 사자가 된 것과 같은 상상을 하며 음악에 맞춰 움직이게 된다.

<악보 1>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4번, 마디 1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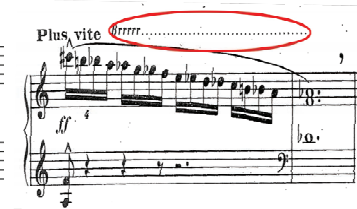
한편, 학생들의 움직임을 끌어내는 내레이션 외에 다양한 의성어를 소개하는 내레이션이 포함된 예도 있는데, 아래에 제시된 <악보 2~7>은 그 예들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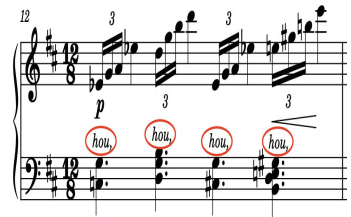
〈악보 2〉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9번, 마디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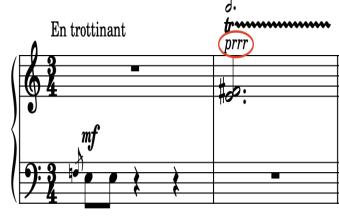
〈악보 3〉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9번, 마디 8



〈악보 4〉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1번, 마디 15-16



〈악보 5〉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4번, 마디 12



〈악보 6〉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9번, 마디 1-2



〈악보 7〉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0번, 마디 3-4

위의 악보에서 소개된 것처럼 교사는 피아노 연주와 더불어 벌들이 날아가는 소리(zzz), 귀뚜라미 우는 소리(cri), 물 터는 소리(Brrrrr), 입으로 바람 부는 소리(hou), 말이 우는 소리(prrr), 코 고는 소리(rrhon) 등을 목소리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악보 하단에 응용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한 유형

3번의 경우 화가가 달, 산, 나무를 그리는 활동이 내레이션으로 소개되었는데, 달크로즈는 악보 하단에 동일한 음악으로 작은 집, 굴뚝, 토끼, 다양한 도형 그리기 등을 대입해서 추가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24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관차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장면에서 어울리는 내레이션이 소개되었는데, 추가 활동에서는 기관차 대신 화물 트럭, 비행기, 증기선으로 바뀌어서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8번의 경우 표제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이고 교실을 배경으로 한 내레이션이 악보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가 활동에서는 뭔가 잘못된 상황 설정을 교실에서 과수원으로 바꿔 〈표 4〉와 같이 소개하였다. 〈표 4〉에서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야기의 소재는 달라졌지만 상황 설정은 유사해 동일한 음악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표 4〉 8번 ‘뭔가 잘못되었을 때’에 제시된 이야기 비교(Jaques-Dalcroze, 1930, p. 3)

악보에 포함된 내레이션	추가 활동에서 제시된 이야기
<p>우리는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소리치고, 휘파람 불고, 노래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십니다. 갑작스럽게 침묵이 흐르고, 천천히 내 자리를 찾아가서 앉습니다.</p>	<p>과수원에서 장난치며 즐겁게 놀고 있어요.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려는 순간 주인이 나타났어요. 어이쿠, 깜짝 놀라 도망쳐요.</p>

한편, 위의 예들처럼 이야기의 소재나 상황을 바꾸는 대신 교사의 즉흥적 변형을 유도하는 예도 있는데, 23번의 경우 내레이션에서 〈악보 8〉과 같이 “시계는 8시를 알립니다.”라고 제시되고, 음악이 〈악보 8〉과 같이 전개된다. 달크로즈는 추가 활동에 “피아니스트는 시계의 종소리 숫자 및 5도로 제시된 음정도 변화시켜 연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 종소리처럼 울리는 제시된 모티브를 빼꾸기시계의 삐걱 소리로 변형해서 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Jaques-Dalcroze, 1930, p. 32)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활동은 교사의 즉흥 연주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수법적 장치를 소개한 예라 할 수 있다.



〈악보 8〉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3번, 마디 19-22

IV. 이야기 표현에 사용된 특징적 작곡 기법

1. 특징적 모티브의 반복적 사용

달크로즈는 이야기에 담긴 장면, 동작, 소리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특징적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곤 했다. 장면이나 동작을 묘사한 예 중 1번의 경우 〈악보 9〉와 같

이 트릴을 포함한 모티브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며 제시되는데, 등장인물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장면이 트릴을 통해 잘 묘사된다. “사자 한 마리가 정글 속을 어슬렁거리며 점심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시된 4번에서는 <악보 10>과 같이 낮은 음역에서 부점을 포함한 리듬 패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사자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17번의 경우 <악보 11>과 같이 ♯♯ ♩ 리듬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촛불을 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모두 숨을 들이 마쉬고는 연기를 내뿜는다
L'on aspire, puis renvoie la fumée

사자 한 마리가 정글 속을 어슬렁거리며 점심거리를 찾고있어요
Le lion erre dans la jungle pour chercher son déjeuner.

촛불을 켜요 (+ 사인에)
On allume les bougies. (aux signes +)

<악보 9>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번, 마디 4

<악보 10>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4번, 마디 1-2

<악보 11>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7번, 마디 27-28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특정 모티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9번의 경우 벌과 귀뚜라미의 소리를 차별된 의성어 뿐 아니라 구별된 리듬과 선율 진행의 반복으로 표현하였다<악보 12~13>. 20번에서는 코를 고는 소리를 묘사하기 위해 트릴이 포함된 단2도 간격의 음정이 <악보 14>와 같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뼈꾸기가 8시를 알려요.”라는 내레이션이 나올 때 뼈꾸기 소리를 묘사한 5도 음정의 모티브가 2마디에 걸쳐 8번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시계의 종소리를 연상할 수 있게 해준다<악보 15>.

<악보 12>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9번, 마디 2-3

<악보 13>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9번, 마디 8-9

<악보 14>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0번, 마디 3-4

<악보 15>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0번, 마디 11-12

2. 변화 화음, 다양한 음계 및 빈번한 전조를 통한 분위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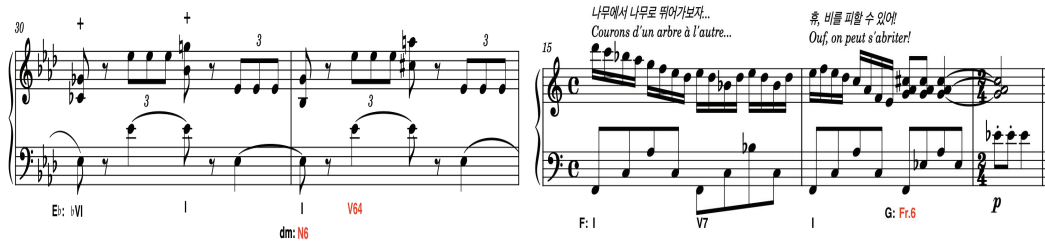
뛰어난 즉흥 연주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달크로즈의 작품들에서는 화성의 전위, 비화성 음, 변화 화음 및 이례적 화성 진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유승지, 2016), <어린이 정원>에서도 부속화음, 부감 7화음, 나폴리 6화음, 증 6화음 등의 변화 화음이 즐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색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끌어내는 장치로 프레이즈가 끝날 때 정격중지보다 허위중지 혹은 반중지가 즐겨 사용하고, 변화 화음을 제시하여 예상치 못한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도 발견되었다(악보 16~18).

〈악보 16〉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번, 마디 16
허위중지의 예

〈악보 17〉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3번, 마디 5-6
해결되지 않는 감화음을 사용한 중지의 예

〈악보 18〉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4번, 마디 14
나폴리 6화음을 이용한 중지의 예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작품에는 장·단조 외에도 선법, 반음계 등의 다양한 음계가 사용되어 색채감이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 낸다. 또한 24곡 중 하나의 조성을 유지하는 곡은 7곡뿐이고 나머지 곡들은 1~2쪽 내외의 짧은 작품에서 빈번한 전조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적으로 발견된다. 그중 2번은 처음에 제시된 내림 나장조의 조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이는 균악대가 반복적인 동작을 하면서 신나게 행진하는 모습을 단순하고 활기찬 음악으로 표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반면에 잦은 전조가 이루어지는 곡들의 경우 전조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화 화음들이 사용되어 음악에 집중하도록 만든다(악보 19~20).



〈악보 19〉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7번,
마디 30-31

〈악보 20〉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2번,
마디 15-17

〈표 5〉는 조성의 변화를 통해 장면 전환을 효과적으로 만들어 낸 예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성의 변화는 장면 전환을 만들어 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표 5〉는 그 예들이다. 1번의 경우 프레이즈 별로 전조가 되는데 이때마다 여자·남자·아빠·할아버지 순서로 등장인물이 바뀐다. 12번에서는 학생들이 동·서·남·북으로 숨을 내쉬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마다 조성을 변화시켜 분위기를 바꿔준다. 이상의 예들을 통해 달크로즈는 학생들이 음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음악적 장치로 조성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고, 조성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상황과 새로운 등장인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한다.

〈표 5〉 조성과 이야기의 관계

	1번				12번			
마디	마디 1-4	마디 5-8	마디 9-12	마디 13-17	마디 1-3	마디 4-5	마디 6-8	마디 9-10
조성	E♭ Major	f minor	g minor	c minor	B♭ Major	D Major	B♭ Major	F Major
내용	여자	남자	아빠	할아버지	북쪽	서쪽	동쪽	서쪽

3. 내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프레이즈 및 형식의 전개

24개의 곡 대부분은 프레이즈 단위로 이야기가 기승전결의 형태로 발전되고, 전통적 조성 관계에 기초한 형식 구분에 대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상황의 전환이나 이야기의 반전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프레이즈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구분되는 예

들도 발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음악적 변화뿐만 아니라 악보에 제시된 내레이션이 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1번에서는 $A(a+a'+a'')+B(b)$ 의 구조를 띠는데,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A 부분에서는 야외, B 부분에서는 실내로 바뀐 것이 관찰된다. 6번의 경우에도 $A(a+b)+B(c)+coda$ 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A 부분은 비눗방울을 제작하는 과정을 담고 있고, B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21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8마디로 구성된 A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이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는 장면, 16마디로 구성된 B 부분에서는 악마와 대결해서 물리치는 장면으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다.

한편, ABA' 의 구조로 이루어진 9번의 경우 A 부분에서는 벌, B 부분에서는 귀뚜라미 그리고 A' 부분에서는 작은 날벌레가 등장한다. 14번의 경우 A 부분에서는 손을 호호 불며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장면, A' 부분에서는 집에 도착해 뜨거운 수프를 호호 불며 식혀서 먹는 장면 그리고 A'' 부분에서는 뜨거운 감자를 호호 불며 식혀서 먹는 장면이 전개된다. 이렇게 3가지 다른 장면이 전개되지만 9번과 달리 선율 변주 기법을 적용해 $AA'A''$ 의 구조로 전개한 것은 호호 입김을 부는 장면을 통일된 음악적 아이디어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4. 기타 음악 요소의 선별적 적용

음악의 다양한 요소들은 청자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장조는 긍정적 반응, 단조는 부정적 반응, 빠르고 강한 음악은 역동적 반응 그리고 느리고 조용한 음악은 비 역동적인 반응을 끌어낸다(송윤희, 정진원, 2021, p. 99에서 재인용). 달크로즈는 음악의 여러 요인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이야기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만들어 학생들의 다양한 감정을 끌어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4번은 24마디로 이루어진 곡으로 *pp*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졌다가 13마디에서 *ff*에 이르고 다시 점점 작아져 마지막에 *p*로 끝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멀리서 기관차 소리가 들리다가 점점 가까워지며 역에 도착한 후 물건을 내려놓는 장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번은 군인들처럼 걷기, 5번은 발로 땅을 세게 구르며 걷기와 살금살금 발끝으로 걷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음악이 전개된다. <악보 21~23>에서 관찰되는 것처럼 2번은 경쾌한 리듬과 악센트가 강조된 선율 진행에 의해 행진곡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고, 5번은 셈여림, 음역, 아티큘레이션 및 텍스처의 대조에 의해 구별된 움직임의 끝을 끌어낸다. 22번에서는 비를 피해 집으로 빨리 달려가는 장면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장면을 <악보 24>와 같이 16분음표(♩)

의 빠른 패시지와 점 2분음표(♩)의 대조를 통해 그려낸다.

플루트 연주자, 트럼펫 연주자, 트럼본 연주자, 그리고 큰 북과 심벌즈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
Il y a des flûtistes, des trompettes, des trombonistes, et aussi un joueur de grosse caisse et de cymbale.

〈악보 21〉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번,
마디 7-10

아이들이 발로 바닥을 세게 쿵쿵거리며 방 안을 뛰어놀고 있어요.
Les enfants s'amuse à parcourir la chambre en frappant fortement le sol du pied.

♩ Deciso

〈악보 22〉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5번,
마디 1-2

그래서 아이들은 아주 부드럽게 발 끝으로 걸어나요
Alors les enfants, bien gentiment, marchent sur la pointe des pieds.

〈악보 23〉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5번,
마디 13-15

빨리 집으로 돌아가
Retourons vite à la maison.

〈악보 24〉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2번,
마디 23-26

달크로즈는 〈어린이 정원〉을 학생들이 경험하면서 ‘호흡하기’를 배우기 원한다고 서문에 밝혔는데(Jaques-Dalcroze, 1930), 이 작품에서 쉼표는 이야기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번의 쉼표는 4마디로 이루어진 프레이즈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며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악보 25). 12번의 경우 프레이즈의 시작마다 쉼표를 제시하여 새로운 프레이즈의 시작을 알려주고, 숨 쉬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끝낸다(악보 26). 6번에서는 곡 중간에 박자를 바꿔줌과 동시에 한마디 전체에 쉼표를 넣어 등장인물의 흥분된 감정을 극적으로 묘사해준다(악보 27). 따라서 쉼표는 프레이즈 구분 뿐 아니라 특정 감정 및 동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쉼표를 학생들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음악적인 호흡하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된다. 한편, 6번에서는 매 마디 박자가 변하는 것이 발견되는데, 앞서 〈표 1〉에서 제시된 8개의 변박자가 사용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달크로즈는 장면의 전환이나 원활한 활동을 끝내고 음악적인 호흡을 가르치기 위해 박자를 변화시킨 것으로 관찰된다.

짧은 여인들이 입에 담배를 물고 선택하고 있어요.
Les petites dames se promènent, la cigarette au bec...

Moderato

모두 숨을 들이마시고는 연기를 내뿜어요
L'on aspire, puis renvoie la fumée

〈악보 25〉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번,
마디 1-4

숨을 들이마시고
L'on prend son souffle

북쪽을 향해 입을 닫은 채로 숨을 내신다.
L'on souffle, lèvres mi-serrées,
dans la direction du Nord.

후
Hou

Allegro moderato

〈악보 26〉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12번,
마디 1-3

후, 불자,
L'on souffle,

방울이 하나 생기고는 부풀어 오른다.
Une bulle se forme et se gonfle.

얼마나 예쁜지!
Oh, qu'elle devient belle!

(남아가는 소리)
Frrrtt...

15

〈악보 27〉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6번, 마디 16-18

3번은 특징적 선율 진행을 통해 화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악보 28〉과 같이 “직선으로 산을 그리고”라고 묘사된 부분은 선율의 진행이 산이 삐죽삐죽 솟아 있는 모습이 연상되고, “비스듬히 서 있는 나무를 그린다.”라고 소개된 부분은 〈악보 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행하는 선율선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나무를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

직선으로 산을 그리고,
les montagnes qui sont des lignes droites,

〈악보 28〉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3번,
마디 18-19

때때로 비스듬히 서있는 나무를 그린다, 등등
les arbres qui parfois sont obliques, etc.

〈악보 29〉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3번,
마디 20-22

셈여림, 음역, 아티큘레이션, 텍스처, 리듬 및 선율의 진행 외에도 템포는 이야기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음악적 요소로 작용한다. 21번에서는 등장인물이 급하게 도망가는 장면에서 *accelerando*가 표시되어 급박한 분위기가 잘 표현되고, 8번에서는 신나게 떠들다가 천천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diminuendo*와 *rall.*가 동시에 표시된 것이 발견된다(악보 30~31). 한편, 템포 표기와 관련하여 *Allegretto* 등의 일반적인 템포 관련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감정이나 동작 등을 묘사하는 나타냄 말인 편안하게(Comodo), 단호하게(Deciso), 가볍게(Légèrement), 고요히(Tranquillement), 빠른 걸음으로(Avec allure), 중중 걸음으로(En trotinant), 즐겁게(Joyeusement) 등의 이탈리아어 혹은 불어가 사용되어 교사가 상상력을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도와준다.



〈악보 30〉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21번,
마디 28-30



〈악보 31〉 달크로즈 〈어린이 정원〉 8번,
마디 19-24

V. 결론

달크로즈는 수많은 교육용 작품을 작곡하였다. 그 중 〈어린이 정원〉은 음악과 조화를 이루는 내레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음악과 이야기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작품이다. 음악은 각 민족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창작 발전되어 왔고 그 사회와 문화적 상황을 분명하게 반영하는데(유은석, 2017, p. 140에서 재인용), 〈어린이 정원〉에 수록된 24개 작품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달크로즈는 20세기 초반 유럽 사회의 문화와 풍습이 반영된 내용들을 소재로 삼아 이 작품을 작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동물 및 곤충, 놀이, 일상생활, 교통수단, 그리고 자연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소재들의 선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작품에 소개된 이야기들은 3가지 유형: 1) 작품의 배경 및 음악에 맞춰서 해야 하는 활동을 곡의 앞부분에 소개한 유형, 2) 오선 악보 사이에 내레이션을 삽입한 유형, 3) 악보 하단

에 응용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 움직임 및 의성어 등이 포함된 내레이션은 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장면을 상상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들어 음악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신체 표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달크로즈가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작곡 기법은 1) 특징적 모티브의 반복적 사용, 2) 변화 화음 및 빈번한 전조를 통한 분위기 전환, 3) 내레이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프레이즈 및 형식의 전개, 4) 기타 음악 요소(셈여림, 음역, 아티클레이션, 텍스추어, 리듬, 선율, 템포 등)의 선별적 적용 등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다른 예술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음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데(교육부, 2015),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음악·문학·무용의 요소를 접목하여 창작된 <어린이 정원>은 창의적 예술 융합 수업 방안을 모색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도전이 되는 과제도 던져 준다. 이야기와 피아노 연주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신체 표현 활동을 끌어내는 수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아노 연주 기술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시선을 마주치며 피아노 즉흥 연주와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학생들의 정서적·신체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피아노 즉흥 연주 능력을 키우는 것도 교사에게 요구된다.

이 작품을 분석하면서 배경이 20세기 초반이다 보니 현대를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소재들이 등장하는 것과 일반 교사들이 연주하기에는 어려운 곡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생소한 소재들을 활용해서 20세기 초반의 문화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학생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달크로즈가 하나의 음악에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안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연령과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교사가 음악에 어울리는 소재를 발굴하여 이야기를 각색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꼭 달크로즈의 음악이 아니더라도 교사가 연주할 수 있는 기존의 작품을 활용하여 그 음악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창작하여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한편, 피아노 연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이야기와 피아노 연주가 접목된 수업을 교육 현장에서 적용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달크로즈는 이 책의 서문에서 “교사가 피아

노 즉흥 연주가 자신이 없으면 피아니스트에게 음악을 연주해달라고 요청해도 좋다.” (Jaques-Dalcroze, 1930, preface)고 하였는데, 그의 제언처럼 피아노 연주가 자신이 없는 교사는 피아노 전공자와 팀을 이루어 역할을 구분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달크로즈가 우리에게 전해 준 아이디어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교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학생들에게 음악적인 연주와 표현력 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서 학생들의 상상력과 잠재된 음악성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이야기와 음악을 조화롭게 결합한 달크로즈의 창작 아이디어는 이러한 작품 창작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의 어린이들이 흥미롭게 여길 수 있는 이야기의 소재가 활발하게 발굴되고, 그러한 소재를 바탕으로 유·초등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내레이션이 포함된 피아노 작품 창작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게 예술 융합 수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2].
- 송윤희, 정진원(2021). **음악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유은석(2017). 자크 이베르의 〈이야기들〉 중 두 악장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교수방안 연구. **음악교수법연구**, 18(1), 139-165.
- 유승지(2016). «어린 피아니스트를 위한 10개 모음곡»분석을 통해 발견한 달크로즈의 음악어법과 교수학적 아이디어. **이화음악논집**, 20(3), 70-114.
- Dale, M.(2020). Stories in music and dance teaching to children's nature. In F. Bautz et al.(Eds). *Chemins de rythmique 3 paths to rhythmic 3*. Genève: Editions Papillon.
- Haddon, E. & Burnard, P.(2016). *Creative teaching for creative learning in higher music education*. NY: Routledge.
- Hinson, M. & Roberts, W.(2014). *Guide to the pianist's repertoire*. 4th ed.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 Jaques-Dalcroze, E.(1921). *Rhythm music & education*. H. F. Rubenstein(Trans.). London: The Dalcroze Society.
- _____ (1930). *Le Jardin d'enfant: 24 petits jeux rythmiques pour piano*. Paris: Heugel.
- _____ (1999). *Six Danses Bigarrées pour piano*. Genève: Editions Papillon.
- Kautsky, C.(1999/2000). Storytelling at the piano. *The American Music Teacher*, 49(3), 20-23.
- Le collège de l'institut Jaques-Dalcroze(2019). *The Dalcroze identity*. Genève: IJD.
- Randel, D. M. ed.(1986).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Program music."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Spector, I.(1990). *Rhythm and life: The work of Emile Jaques-Dalcroze*. NY: Pendragon Press.

■ Abstract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Story in Jaques-Dalcroze's *Le Jardin d'enfants: 24 petits jeux rythmiques pour piano*

Park, Soyeon · Ryu, Seungji

Le Jardin d'enfants: 24 petits jeux rythmiques pour piano published in 1930, was composed by E. Jaques-Dalcroze to use in children's eurhythmics class. Each work includes commentaries that harmonize well with the music.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iscov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music and story and exploring ideas for creating piano works with narr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work, it was found that Dalcroze brought the subject of the work from animals, insects, play, daily life, transportation, and nature that could appeal to children. In addition, Dalcroze employed distinctive compositional techniques to effectively express the image, movements, and sounds embedded in the stories. These techniques include 1) repetitive use of characteristic motifs, 2) mood changes through altered chords, various scales, and frequent modulations, 3) development of phrases and forms closely related to narration, and 4) selective application of other musical element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lead to more active creation of works with special educational purposes, such as *Le Jardin d'enfants: 24 petits jeux rythmiques pour piano*, and to increase interest in classes using these works i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education, where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 education is emphasized.

Keywords: E. Jaques-Dalcroze, *Le Jardin d'enfants*, Rhythm game, Narration

논문접수: 2023년 6월 30일 수정본접수: 2023년 8월 30일 게재승인: 2023년 9월 10일